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7.03.2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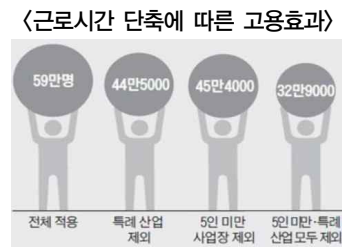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우리나라 근로시간, 연 2113시간으로 OECD 최고 수준

01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
 - 2015년 기준 OECD 평균 근로시간은 연 1766시간으로, 독일은 근로시간이 가장 짧아 연 1371시간에 불과하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1790시간, 1719시간 수준
 - 100년 전에는 주 48시간 이상이었으나 1917년 10월 혁명 직후 러시아 정부가 하루 8시간 노동을 법제화하고,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호 협약으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 노동제를 채택
 -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주 40시간을 목표로, 1970년대 이후에는 주 35시간을 목표로 각 국가 산별교섭(독일)이나 정부주도(프랑스)의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근로시간을 감축
- 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연장근로 제외)으로 대폭 줄였으나(주5일 근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최장 68시간 근로 가능
 - 현행 근로기준법(제50조 1항)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제52조 1항)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면서,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근로 가능(40+12+16)
- 대신주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유급 안식월·안식년 도입을 주장
 - 각 사업장에서 줄여든 '주 16시간' 의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될 것이고,
 -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25일로 늘리고, 한달간 모아서 사용(안식월)하거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에 1년씩 유급 안식년 도입

*조선비즈(2017.3.20), '주4일 근무, 안식년 도입 근로시간줄여 일자리 나누자'



자료: 노동사회연구소

0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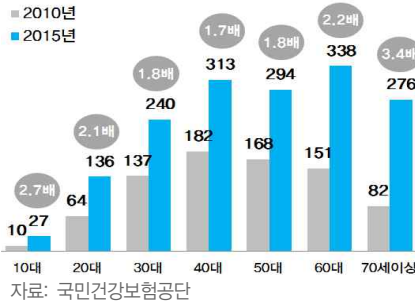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하고, 씩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자의 수입 감소, 신규인력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해석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는 시간 당 임금을 인상하여 일정수준 보전하되, 안식월이나 안식년 같은 근로자 복지를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 시도
 - 신규채용이 어려워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

2. 공황장애, 70대 이상 노인 3.4배 증가

01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공황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5.8% 증가*
 - 공황장애는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부분의 과민반응으로 뇌의 신경전달물질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며, 생물학적·유전적 요인과 유년기 충격, 스트레스 등이 원인
 -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0년 5만1천명에서 2015년 10만6140명으로 연평균 15.8%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90억 원에서 2015년 357억 원으로 연평균 13.3% 증가
 -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10년 104명에서 '15년 21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5년 기준 여성이 56.1%, 30~50대가 65.9% 차지(이 중 40대가 25.7%로 가장 많음)
- 공황장애는 연예인과 같이 대중의 즉각적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전반의 불안이 개인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
 - 최근 유명인들이 공황장애 입을 밝히면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 정신과를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전체 성인인구의 약 30%가 평생 한차례 이상 강력한 불안 증세나 공포를 느끼는 '공황발작'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발생
 - 40~50대 환자수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것은 이 시기가 직무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데다 몸의 건강은 서서히 쇠퇴하고 자녀교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겪기 때문
- 이번 분석에서 특기할 사항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진 공황장애가 70대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 다른 연령대가 5년 새 1.7~2.2배 증가한 것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집단은 3.4배나 증가
 - 70대 이상의 집단도 '황혼기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식세대 부양을 받기 어려워지고 지인들의 죽음을 겪으며 일생을 바쳐 이룬 것을 한순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신체적 쇠퇴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
- 공황장애로 겪는 고통은 죽음에 비유될 만큼 심각하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현재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
 -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가 주요 증상이며, 만성이 되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

〈인구 10만명당 공황장애 환자 (연령대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3.19.)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공황장애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적 질병 위주의 건강검진에서 정신질환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신건강 예방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경기도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기인 40대와 60대에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스트레스 체크를 넘어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검진 서비스를 시범 운영
 - 시범 운영 후 정신건강 검진 대상자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고, 특히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을 세밀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 공황장애의 주된 원인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스트레스 원인을 규명,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 청년·중년·노년 등 각 연령대가 직면한 일자리, 직무부담과 자녀교육, 사회적 고독,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안전망 구축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전국 시도별 결핵 발생 현황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 및 결핵 발생률을 지역별로 비교

-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86명으로(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
 - 결핵은 치사율 50% 이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이었으나, 1940년대 들어 항(抗)결핵제가 등장하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위험도 감소
 - 우리나라는 1962년 국가결핵관리체계 구축 이후 결핵환자가 종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인구 10만 명 당 86명이 발병하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305명
- 2015년 기준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80.2명·발병률은 63.2명이며, 지역별로 강원·충북·충남의 발병률이 89.2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43.8명)이 가장 낮음***
 - 2015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총 40,847명이며, 이 중 32,181명은 신환자(초치료자)에 해당
 - 20~30대 결핵환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제주에, 80대 이상 결핵환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많이 분포****

〈표〉 시도별 결핵 환자 수 및 발병률

	전체환자	신환자	발병률		전체환자	신환자	발병률
전 국	40,847	32,181	(63.2)	세 중	101	80	(43.8)
경 기	8,637	6,782	(55.0)	강 원	1,762	1,368	(89.2)
서 울	7,605	6,011	(60.7)	충 북	1,242	986	(62.8)
부 산	3,046	2,386	(68.6)	충 남	1,827	1,455	(70.8)
대 구	1,899	1,518	(61.4)	전 북	1,542	1,206	(64.9)
인 천	2,110	1,646	(57.0)	전 남	2,149	1,657	(87.5)
광 주	1,000	803	(54.8)	경 북	2,962	2,328	(86.7)
대 전	913	730	(48.2)	경 남	2,804	2,217	(66.4)
울 산	777	634	(54.5)	제 주	471	374	(61.2)

- 도내 시군 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78명),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의왕(38.9명)
 - 결핵 발병률은 포천(78명)·시흥(73.6명)·안산(73.3명)·동두천(73.1명)·의정부(70.8명) 순으로 높고, 도내에서 발병률이 낮은 지역은 의왕(38.9명)임

〈표〉 시군별 결핵(신)환자 수 및 발병률

	전 국	경 기	가 평	고 양	과 천	광 명	광 주	구 리	군 포	김 포	남양주	
신환자	32,181	6,782	42	465	43	206	142	94	145	183	312	
발병률	(63.2)	(55.0)	(69.0)	(46.1)	(62.5)	(60.0)	(46.7)	(50.9)	(50.7)	(53.3)	(48.7)	
		동두천	부 천	성 남	수 원	시 흥	안 산	안 성	안 양	양 주	양 평	여 주
신환자	70	531	512	541	289	511	121	325	128	65	59	
발병률	(73.1)	(62.9)	(53.2)	(46.2)	(73.6)	(73.3)	(67.3)	(54.7)	(63.4)	(61.3)	(53.7)	
		연 천	오 산	용 인	의 왕	의정부	이 천	파 주	평택	포 천	하 남	화 성
신환자	28	125	434	61	302	103	223	240	120	71	291	
발병률	(62.2)	(60.5)	(45.0)	(38.9)	(70.8)	(50.6)	(53.9)	(53.5)	(78.0)	(45.5)	(51.4)	

- 지역별로 결핵 발병환자의 주 연령대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결핵예방 및 잠복결핵 발굴 등 관련 정책 설계 시 지역 및 연령 특성 고려

2. 주요행사 안내

행사명	주요내용
[국회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3. 29.(수)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내 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발표 및 종합토론 • 문 의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02-788-4720)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그러나 최근까지도 발병률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

*** 「2015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박우정 외 (2015) "국내 결핵환자의 공간적 분포 및 관리방안"

(단위: 명, (명/10만 명))

(단위: 명, (명/10만 명))

03 FACT CHECK

청년실업률 12.3%, '그냥 쉬 청년은?'

- 청년실업률이 12.3%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으나, 15~29세의 그냥 '쉬었음' 인구도 36만2천명이나 되어 실제 실업률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청년실업률은 청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이나,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나, 일할 능력이 있지만 그저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구직실패를 반복한 청년들이 올해도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음
 - 2016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649.5만 명으로 육아(8.0%), 가사(36.7%), 재학수강(22.6%), 쉬었음(11.5%), 기타(5.0%) 등의 활동 상태로 분류할 수 있고,
 - 이 중 '쉬었음' 으로 응답한 대상 중 약 34%는 근로능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아 쉬는 것으로,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분류 가능**
 -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냥 쉬' 청년계층 36만 2천명을 실업을 산출 방식에 적용하면 청년실업률은 12.3%에서 18.9%로 6.6%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계층을 실업률에 포함하는 등 실업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통해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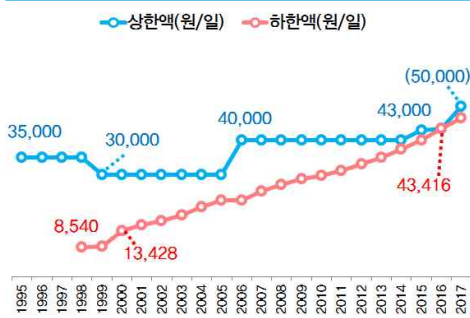
*연합뉴스 (2017.3.21) "그냥 쉬 청년백수 36만명"

**통계청 비경제 활동인구 부가조사('1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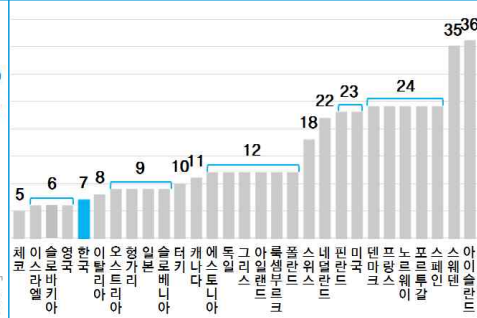
04 통계로 보는 복지

한국 실업급여 현황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추이 (1995-2017)*



OECD 주요국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개월)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왼쪽),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2017년 3월호(오른쪽)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 1일 상한액은 '95년 3만5천원에서 '17년 3월 현재 4만3천원으로 소폭 인상
 - 1일 하한액은 '98년부터 최저임금의 70%로 지급되다가 '00년부터 최저임금의 90%로 인상
 -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점차 인상되던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2016년~)하게 되자, 올 4월부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3. 21)**
-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7개월***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
 - OECD 가입국 중 아이슬란드(36개월)· 스웨덴(35개월)이 가장 길고, 체코(5개월)가 가장 짧음

*일 급여 기준

**또한 모법개정 추진을 통해 하한액 기준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

***40세 근로자가 단절 없이 근로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기간

05

해외동향

세계사회복지의 날(World Social Work Day)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념하고 있는 세계사회복지의 날(World Social Work Day)의 제정 배경과 기념행사 현황을 살펴봄

- 1983년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에서 시작된 '세계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기념하며, 올해 주제는 '지역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 세계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분야의 업적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날
 -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은 매년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는데, 이는 4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정부·단체·학교 등에 게시되고 있음
 - 2017년 세계사회복지의 날은 3월 21일로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for Social Work and Social Development)* 주제에 따라 2년마다 주제가 변경

〈표〉 세계사회복지의 날 주제

연도	주제
2012-2014	사회경제적 평등 증진(Promoting social and Economic Equality)
2015-2016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증진(Promoting the Dignity and Worth of Peoples)
2017-2018	지역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Promoting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19-2020	인간관계의 중요성 제고(Promoting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자료 : 국제사회복지사연맹 웹사이트(<http://ifsw.org/>)에서 재구성

- 2017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주제는 '지역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가 환경 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사회복지가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세계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기관들은 정부, 지역사회 등에 사회복지전문직의 사회적 공헌과 바람직한 변화를 환기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사회복지사연맹에서 유엔 사무국 대리 업무의 일환으로 세계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조직
 -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UN 제네바 사무국에서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의 형태로 개최
 - 3월 21일 라운드테이블(주제 :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UN 기구 간 협력) 및 3월 22일 워크숍(주제 : 사회복지와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 수행-도전과 기회) 등의 행사가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캐나다 사회복지사 협회(CASW)에서는 캐나다 전역의 사회복지사들이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함께 축하하도록 장려
 - 사회복지사 수가 현저히 낮은 짐바브웨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
 - 한국에서도 국제사회복지사연맹의 회원국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한 각 국의 사회복지사협회 및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성취와 업적을 축하해 왔음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국제사회복지교육협회(IAS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간의 공동작업

**특별 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ECOSOC에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는 있으며, 산하 기구회의에서는 제안 없이 발언할 수 있음